

노량진(오전)	6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 새벽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6월 5일 (제1152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분내지 말라

모그룹의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을 때 2가지 정신을 교육받았다. 그중 하나가 목계가 되라는 것이었다. 목계(木鷄)란 말 그대로 나무로 만든 닭을 말한다. 왜 하필 목계가 되라고 했을까? 그 부친은 이렇게 말했다. “싸움닭 중에 가장 으뜸은 털을 다 세우고 대항하여 이기는 닭이 아니라 웬만한 닭이 달려들어도 나무로 만든 닭처럼 무반응하는 닭이다. 곧 잔바람이나 풍랑에 출렁이는 쪽배가 되지 말고 폭풍 속에서도 끄떡없는 항공모함같이 큰 자가 되라. 어떤 경우에도 분을 내지 말라. 분을 내는 순간 진다.” 부친의 교육대로 실천한 회장은 그룹을 승계할 당시보다 무려 14배나 신장시켜 세계 최고의 그룹으로 만들어 놓았다. 성경은 이미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

아구까지 채운 물을 떠서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진 적이 있는가? 애써 일군 과일이 태풍에 낙과한 경험이 있는가? 해일이 일어 온갖 것을 다 쓸고 가버린 것을 보았는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봤는가? 이것이 분내면 생기는 결과다. 한 마디로 분을 내는 것은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것과 같다.

어느 장로가 거래상과 잘 대화하다가 도장 찍기 직전 화를 내는 바람에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을 보았고, 어느 성도는 화를 내다 뒷목을 잡고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것도 보았다. 마스크를 떠들썩하게 하는 방화나 살인 등등 입에 올리기도 싫은 일들이 바로 분노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분노는 이처럼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다. 나는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손해도 많이 보고, 부모 마음도 아프게 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충수처럼 목계가 되었다. 많은 경험이 나를 목계가 되게 했고, 더는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 내 감정 하나 추스르지 못하는 자에게 언급생심 대업이라. 늘 말하지만 콜라 같은 자가 되지 말고, 돌을 던져도 바로 고요해지는 생수 같은 자가 되라.

음식 맛은 고객이 먼저 알더라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야 할 만큼 고객이 몰려드는 맛집이 있는가 하면, 해가 지고 어스름한 저녁에도 파리만 날리는 음식점이 있다. 맛만 있다면 거리 불문, 가격 불문이다. 잘 되는 음식점은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설명할 필요 없이 맛은 고객이 먼저 안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첫사랑을 되찾으라고 촉구하셨다.

“고객 만족도에 따라 성패가 갈립니다.

니다. 그러나 성공자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길을 찾습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무엇이 문제인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에베소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눅13:32). 오늘도, 내일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오늘도, 내일도 찬양하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란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운동하면 건강이 옵니다. 오늘도, 내일도 회개하면 깨끗해 집니다. 쉬지 않고 연습하니 명연주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쉬지 않고 하면 녹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끊어진 사람에

인생이 피곤한 것은 일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봉우 이초석 목사

일할 때는 근심걱정이 없다

맛없는 음식을 누가 먹겠습니까? 내 돈과 시간을 들여 맛을 찾아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문제는 고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맛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음식점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 맛을 낼까, 어떻게 하면 고객의 입맛을 맞출까 노심초사하며 연구하던 어느새 배가 부르니 타성에 젖어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첫사랑을 잃은 겁니다. 변질된 겁니다. 고객이 먼저 알고 떠납니다.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음식 맛은 고객이 먼저 알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나는 절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잘 나가는 기업이 많고, 잘 되는 음식점도 많습다. 늘 말하지만, 실패자들은 핑곗거리만 찾습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쫓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2:2~5). 이게 어찌 에베소교회에 국한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공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음식이 부패했으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장이 녹슬었으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을 쌓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타 교단 목사님들이 나에게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능력이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으십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쉬지 않고 연장을 갈고 닦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를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녹슬어선 안 됩니다. 은사가 녹슬어선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젠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꿈에 예수님과 회의하다가 내가 너무 피곤하여 자리에 누우니 예수님이 ‘피곤하면 쉬어라,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하시며 일어나 나가시는 게 아닙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다시 일어나 오늘까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일거리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모세처럼 죽는 날까지 쓰임 받다 낡아서 닳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버림받기는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세요. 음식이 변질되면 쓰레기통에 던져질 뿐입니다. 회개하고 첫사랑을 되찾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우크라이나를 도움시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95001-01-110736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계3:14~22)

우유부단한 자가 되지 말고 열심을 내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 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계 3:14~15).

이는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애야, 나는 미지근한 것을 싫어한다. 제발 매사에 분명한 자가 되라.”

저도 우유부단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우유부단(優柔不斷)이란 어물어물 망설이 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불분명 하고, 어중간한, 미지근한 사람을 일컫지요. 무골호인(無骨好人) 하면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저는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이 좋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멸치도 낙지하고는 훈인을 안 한답니다. 뼈가 없다고요, 쪼대가 없다는 거지요.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이 되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26~27). 사실 이 말씀을 반잡는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사랑하는 가족을 칼로 무자르듯 잘라내는 결단력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랬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혀도 뽀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심정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주만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람인지라 가슴은 아팠지만, 과감히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있었기에 우리 어머니를 비롯한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고, 이시대 목사를 비롯한 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 집안에서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우유부단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12:1)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유부단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반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결단하고 애굽에 대한 미련과 속성을 버렸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지요? 그러려면 먼저는 선택입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집중이 수반되어야 하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 하면 게임 하는 것, 놀러 다니는 것 다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잠도 줄이겠다 결단해야지요. 나쁜 습성도 잘라내야지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끼치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 (막



총회장 이초석 목사

9:43~47)

라고 하신 것

은 비단 신앙적인 문

제에 국한하신 말씀이 아닙니

다. 매사에 결단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유부단은 성공의 큰 걸림돌이니까요.

인생은 술한 결단,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유부단하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단1:8)라고 나옵니다. 결정했다는 겁니다. 뭘요? 왕이 주는 진미와 술을 안 먹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미 바벨론신에게 바쳐진 제사음식이기에 그것들로 자기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다니엘은 결단하고 열흘 동안 채식과 물로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쉬운 말은 아닙니다.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는 불모 신세였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단했고, 열흘 후 보니 진미를 먹은 자보다 살이 올랐고 윤택해졌다고 했습니다(단1).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또 어땠습니

까? 그들은 느브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 결단합니다. 그들의 결단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3:16~18).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

가는 쪽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구하시든 구

하지 않

으시든

우상

에

절

을 하

느니 풀

무불에 들어

가겠다고 결단

한 것입니다. 그런 그

들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셨겠습니까? 그 결과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단3:30).

엘리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이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끝나게 될 것을 아합에게 알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극심한 가뭄이 아합이 바알을 숭배한 결과임을 알려라고 한 것입니다. 아합과 마주한 엘리아는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밝히자고 제의하자 아합도 이에 동의하고 갈멜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엘리아는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곧 850대 1의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엘리아는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

이면 그를 좇을찌니라”(왕상18:21). 겉으로는 하나님을 좇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분명한 신앙을 가질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우유부단함을 회개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도 여호수아가 자신의 최후가 이르렀음을 알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부터 우리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언급한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호한 어조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4~15). ‘우유부단한 신앙을 버려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유부단한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3:16). 신앙의 회색분자들, 즉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놓은 채 기회를 노리는 자들을 토해버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음식이 미지근하면 맛도 없지만, 대장균이 득실거려서 그 음식을 먹었다가는 다 식중독에 걸립니다. 그런 음식이 갈 곳은 쓰레기통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신앙이 미지근한 자들, 기회주의들도 쓰레기통인 지옥에 버린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다

여러분, 우유부단의 근본에는 게으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미지근한 것, 게으름 때문입니다. 매사 결정하지 못하는 것, 고뇌와 번민하기 싫은, 그것에 집중하기 싫은 게으름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늘 쉬어버린 음식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개혁합시다. 우유부단한 습관을 버리고 분명한 사람이 됩시다. 분명한 자가 열심을 내는 법이니까요. ‘부자가 되겠다’ 결단하면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아끼고, ‘일등하겠다.’ 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천국 가서 상을 받겠다’ 결단하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12:11).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교단소식 ::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다!

서울 대학 · 청년부 연합 체육대회

“맡겨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월드 목사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다. 지난 춘계산상집회 때의 일이다. 잠시 짬을 내어 연합수련회와 성경캠프를 위해 전국 각지에 있는 교육부서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996년에 처음 시작된 연합수련회가 이제 벌써 2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다시 전체 행사를 조율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 기도하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어떡하면 수련회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떡하면 이번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수련생들의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떡하면 수련회를 통해 각 부서마다, 지역마다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는 사실 총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의 바람이 아니겠는가!

수련회는 단지 여흥을 위한 행사가 아니다. 때가 되면 으레 하는 연례행사도 아니다. 총회장님께서 염원하시는 것처럼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넘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학계와 정계, 경제계를 아우르는 영향력 있는 젊은이들을 키우는 영적 요람이 되어야 한다.

이미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우치게 해주실 든든한 주 강사가 계신 상황이다. 세부 프로그램과 운영에 있어 디테일에 집중해야 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고, 더 알찬 수련회 운영을 위해 몇 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그중에 하나가 ‘워십 디렉터’, 전임 찬양감독을 세우는 부분이었다. 찬양에 달란트가 있는 지체들과 전국에 흩어진 사역

자들을 하나로 묶고, 이들을 훈련시켜 은혜의 장으로 이끄는 귀한 사역이다. 마침 너무나도 잘 준비된 사역자가 있었다. 바로 대구우리교회 담임 이월드 목사다. 예전에 찬양 예배 생중계로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달군 전력도 있다. 세계 최고의 CCM 워십팀이라 일컫는 ‘힐송의 아성을 넘어서리라!’는 비전을 꿈꾸고 있기도 하다.

고등부 학창 시절부터 그를 지켜보아 왔다. 너무나도 걱정적이었던 시간들을 지내오는 모습에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기도로 응원해왔다. 그래서 조금은 그를 안다. 그 가운데 총회장님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그 과정 또한 고스란히 지켜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감내했을 인고의 시간들도 그러지는 듯 눈에 선하기만 하다.

이제 어엿이 영혼을 사랑하고, 귀하게 섬길 줄 아는 목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의무만 있고 지난하기만 할 뿐인 자리를 권했음에도 그는 너무나도 선뜻 ‘아멘’으로 화답해 주었다. ‘기도는 결코 부도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 응답받지 못할 뿐!’이라는 총회장님의 가르침이 어찌 그리 딱 맞는지....

사업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힘겹게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라! 기도는 결코 부도나지 않는다!

신현명 목사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인생을 멋지게 설계합시다

약 한 달 전, 저는 큰일을 앞두고 총회장 목사님께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가 눈물 속 빠지게 혼이 났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절대! 부담이 간다고 말하지 말라. 네가 말한 대로 된다는 말씀이 어찌 아니 이뤄지겠느냐. 매사 ‘나는 자신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기도해봐라. 왜! 안되는 것이 있겠냐?”

상대를 위로하기 위해 나도 그랬었다며 부정의 말에 동의하고, 눈앞에 닥친 문제를 놓고 믿음 없는 말을 내뱉었던 나. 이유 불문하고 부정의 요소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내 입술에서 부정이 나왔음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부담된다’라는 말조차 용납하지 않으시는 목사님. 그분은 절대로 부정을 말하지도, 동의하지도 않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피로 누적으로 인해 전신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날이 며칠간 지속되었습니다. 저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에게 “피로가 쌓였나 봐요, 몸에 통증이 있어요.”라고 대답했던 저를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알게 하셨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민 14:28)는 말씀이 뒤따라 생각났습니다. ‘오 주님! 제가 뵈은 말로 저를 아프게 했군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한 순간부터 ‘통증은 없다’라고 되뇌었더니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나사르가 죽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시고 ‘나사르가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다’고 먼저 시인하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명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매사에 믿음의 말, 복 받는 말, 긍정의 말을 뿌려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는 약속의 하나님을 경험해봅시다. 우리의 운명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있는 부정은 뿌리째 뽑고 멋지고 아름다운 말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봅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하여 만족케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18:20~21). 김진실 사모

화창한 5월 29일, 예수중심교단의 미래인 서울 대학부와 청년부가 연합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두 부서 약 250명의 청년들이 파주 흥원연수원에 모였습니다. 얼마 전,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 첫사랑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던 젊은이들을 찾고, 각자 대학교와 직장 등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합 체육대회로 인해 교단의 허리 세대인 대학부와 청년부가 부흥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총회장 목사님의 뜻을 잘 이어가는 것이라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날에는 안 보이던 영혼들이 모여들고 교회를 처음 오는 친구들로 가득했습니다. 부서를 무관하고 함께 땀 흘리며 게임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배려하던 우리들, 대학부 후배들은 청년부 선배들을 섬기고, 청년부 선배들은 대학부 후배들을 챙겨주는 아름

다운 동행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가 협력하여 하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며 함께 체육대회에 참석하신 송효양, 안대선 장로님께서서는 “다음에는 중고등부도 함께하고 특히 총회장 목사님도 모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은 큰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이번 체육대회를 발판삼아 저희를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부흥의 기적’이 서울 대학부와 청년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체육대회를 위해 기도로 후원해주신 이시대 목사님, 물질로, 헌신으로 최선을 다해준 대학부와 청년부 지체들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7월, 2022년 제24회 전국 청소년 연합수련회 또한 이런 부흥의 바람이 이어갈 수 있게 열심을 품고 정진하겠습니다.

서울 대학부 · 청년부 연합 일동



:: 내가 매일 기쁘게 ::

나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

SNS의 유명한 셀럽(유명인, celebrity)의 줄임말) 중에서 ‘bonpon511’이라는 이름의 부부가 있다. 이 유명한 실버 부부는 60세가 넘었고, 부부생활은 40년이 넘었다. 이들 부부는 언제나 커플룩을 입고 두 손을 꼭 잡은 채로 사진을 찍는다. 은빛 머리의 노부부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늘 단란하게 지낸다. 이들의 사랑은 여러 권의 책으로도 발매되어 한국에서도 많이 번역되었다.

나도 이들 노부부처럼 살고 싶었다. 남편과 상의 후, 꽤 오랜 시간 함께 커플룩을 입으며, 짧은 거리도 손을 꼭 잡고 걸었다. 그러나 같은 옷을 입고, 손을 늘 잡고 다닌다 해서 귀엽고 다정한 부부가 되지는 않는다. 많은 부부가 그러하듯이, 우리도 부단히 싸우고, 치열하게 다투고, 자주 언쟁하고 울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하는 나와 언제나 크고 넓은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다 받아주는 남편의 넓은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어우러져 우리는 하나가 되고, 늘 행복한 부부로 지낼 수 있었다.

성경 속에도 많은 부부가 등장한다. 최

초의 부부가 된 아담과 하와, 서로 사랑했던 이삭과 리브가, 남편 나발과 달리 지혜로웠던 아비가일,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남편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 여겼던 미갈, 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사가랴와 그와는 달리 믿음으로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 그리고 열심으로 바울을 도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많은 부부를 떠올리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이 성경말씀이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엡5:22~28).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부부의 모습이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화목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된다.

전훈지 집사

:: 부르심의 소망 ::

:: 귀를 기울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생명의 기원에 대해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생물은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믿음’인 진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주에 의해 개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믿음’인 창조론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는 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버드 교양 강의>라는 책을 보면, 조너선 로서스는 <진화의 증거>에서 ‘척추동물, 영장류, 이들 종의 앞다리 구조는 기본적으로 같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두 같은 조상에서 나왔고, 다리는 서로 다른 목적에 맞게 자연선택으로 개량되었으리라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뒷받침할 근거는 고양이와 토끼의 앞다리 엑스레이 사진뿐입니다.

처음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이 이론이 본인의 믿음임을 밝히며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의 생물환경을 갖춘 중간 지역에서 우리는 왜 유연관계가 가까운 중간 단계의 변종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 이론에 따라 수없이 많은 중간 단계의 생물들이 존재했어야 한다면, 우리는 땅속에 묻힌 수많은 생물을 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다윈은 과거에 존재했던 생물들

에 관한 증거는 단지 화석상으로만 나타난다고 했으면서도, 화석에서 진화 중인 동물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문에는 ‘화석의 기록은 극도로 불완전하며 끊어진 부분이 많고, 지질학적 기록도 불완전하다.’며, ‘별레를 잡아먹고 사는 네발짐승이 어떻게 날아다니는 박쥐로 변했는지를 질문한다면 사실 내가 제시할 수 있는 대답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찰스 다윈은 망원경이 ‘인간의 높은 지성이 오랫동안 작용함으로써 완벽하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간의 눈도 누군가의 높은 지성으로 형성되었다고 유추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했지만 ‘이러한 추론이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가? 창조주가 인간의 지성과 비슷한 지적 능력을 갖고 일한다고 가정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결국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는 절대 주권자인 신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창조론의 근거 역시 화석에 있습니다. 화석들을 보면 모든 생물이 제각각의 특징을 지닌 채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과학 뉴스는 수천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식물을 먹고 살았던 곤충 화석을 보도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화석 식물과 화석 곤충이 오늘날 살아있는 식물

및 곤충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천만 년이 지났지만 진화는 없었습니다. 은행잎은 화석기록에서 가장 흔한 나뭇잎 중 하나인데, 현재의 은행잎과 2억 년 전의 은행나무 잎이 동일합니다. 은행나무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30억 개의 DNA 염기쌍을 가진 사람의 유전체(genome)에 비해, 은행나무는 106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유전체를 갖고 있고, 사람은 2만 3,000여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은행나무는 4만 1,840여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적 공격에 대한 은행나무의 복원력은 탁월해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에서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명체 중 하나였습니다. 살아있거나 멸종된 나무 중에서 은행나무와 유사점을 가진 나무들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무에서 진화한 흔적도, 또 다른 나무로 진화한 흔적도 없습니다. 은행나무도 인간보다 월등히 높은 지성을 가진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성경의 맨 첫 장에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신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박영신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확성기 효과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좋아한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이라고 열창하는 소절은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 말에는 힘이 있다. 그렇기에 원하는 모습을 그렸고, 계속 내뿔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정말 꿈이 현실이 될까? 나는 부자가 될 거라면서 인터넷 쇼핑만 하고 있다면, 교수가 될 거라고 말하면서 넷플릭스만 보고 있다면 과연 그 말은 힘이 있을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다. 욕망이 구체적인 현실이 되려면 우리는 액션을 해야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저 몽상가, 허풍쟁이가 될 뿐 주변의 누구도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나는 말의 힘을 믿는다. 진짜 꿈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지금 교회 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것 역시 몇 년 전 ‘믿음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나도 연재해야지’하고 말했던 것의 씨앗이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니 말이다. 말이 행동이 되기 위해선 사실 꽤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나는 말이 행동이 되도록 하는 그사이에 ‘공표’라는 중간

과정을 넣었다. 이걸 매우 효과적인 촉매제(trigger)가 된다. 18년 전, 사회복지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핸드폰 프로필 명을 「미래 복지부장관」으로 바꿨다. 부모님 핸드폰에 저장된 나의 이름도 「복지부장관 딸」이 됐다. 심지어 나의 핸드폰 프로필을 보신 총회장 목사님께서 설교 중 필자의 얘기를 하셨고, 필자를 볼 때마다 「복지부장관」이라고 불러주신다. 난 그저 나만이 아닌 타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기록했을 뿐인데 마치 확성기에 대고 외친 셈이 되었다. 더는 혼자만의 낮두리가 아닌 그 말은 무게를 갖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가 뭔지도 모른 채 「미래 복지부장관」으로 프로필명을 바꾸면서 스스로 염치없는 나에게 고개를 저었으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내 나를 쫓아다니고 있다. 때론 내가 한 말의 중압감에 녹다운이 될 때도 있지만, 나 스스로 각성될 뿐 아니라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결국 최종의 목표를 위해 하나, 둘 세운 바람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적어도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기도하며 애쓴 덕분이다. 이것이 ‘확성기 효과’이다.

가끔 말의 능력만을 주장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다. 이는 발에 씨앗만 뿌려놓고 제 할 일 다 했다고 놀러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말하는 대로만 시행하는 분이 아니다. 인생이나 신앙 모두 땀 흘린 만큼 풍성해지고 성장하는 것. 바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실은 행함이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약 2:22)”

필자는 여전히 목표가 생기면 어김없이 카톡(SNS)을 활용해 공표한다. 행동하기 위해서다. ‘나 오늘부터 무엇이 될 거야’라는 혼잣말은 힘이 없다. 무엇보다도 의지가 약한 내가 나뉘어 들지 못한 말은 언제든 주워 담을 수 있으니 말이다. 당신이 무언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이루고 싶다면 ‘확성기 효과’를 일으켜 보자. 그러면 꿈은 무게를 갖게 되고, 중력의 힘을 받아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날마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행동하고, 인생의 꿈을 이루어가는 좋은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에 결실을 보는 감사한 날이 되기를 소망한다.

Dr. 권정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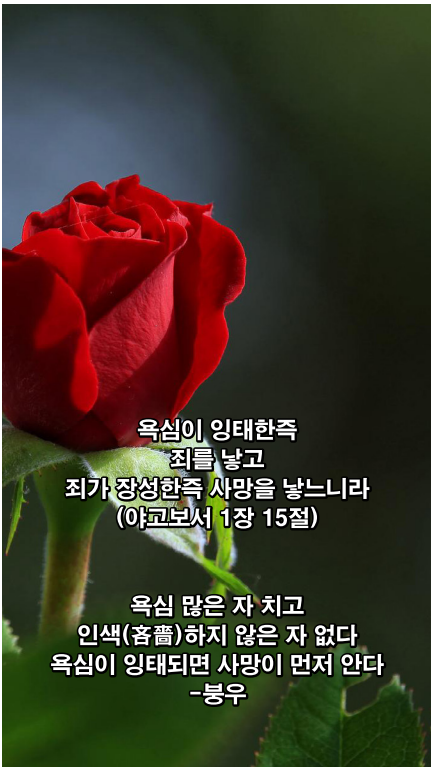
년 선택권이 없어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이다. 예수중심제 자신학원이 노량진교육관에서 7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다. 신혁주 전도사님이 주축이 되어 신학교 개강 준비가 시작되었고, 신 전도사님은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도와준다고 하는 순간, 내가 계획한 모든 일정들이 뒤죽박죽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신학원이 월, 화, 목, 금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는데, 나는 하루 일정 중 첫 2~3시간은 무조건 기도해야 하기에 그랬다. 거기다 월요일 오전은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날인데 절대 양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꿔다. 신혁주 전도사님이 너무나 조심스럽게 신학교 사무실로 보이는 곳, 한 자리를 가리키며 나에게 거기 앉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기겁하며 “나보고 저길 앉아있으라고요?!”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꿈에서 깼다. 터덜터덜 교육관 사무실로 나와 내가 매일 보는 말씀 달력의 글귀를 확인했다. ‘섬김에 있어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택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완전하게 충성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길로 바로 신 전도사님께 전화해서 이런 꿈을 꿔다고 신학원에서 뭘 하면 되냐고 물어봤다. 전도사님은 우리 부서 사무실을 이용해 교수님 의전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닭뎡 같은 눈물이 떨어졌다.

같은 날 오후,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다. 신학교 일정이 화, 목, 금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교수대기실이 대학부 사무실로 변경되어 나는 오전에 틈틈이 기도 시간을 채울 수 있었다. 내가 울면서도 순종하니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이번 일을 겪으며 나를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 앞으로는 한 번에 순종하기로 다짐한다.

곽신애 전도사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 많은 자 치고
인색(吝嗇)하지 않은 자 없다
욕심이 잉태되면 사망이 먼저 안다
-봉우